

현대·기아차, 유럽 '아이오니티社' 지분 20% 확보

3분 충전으로 100km 달리는 전기자동차 3년내 개발

충전속도 7배 초고속 인프라 구축 2021년 이후 전기차 모델에 탑재 스포츠카 수준 고성능차 개발박차

현대·기아자동차가 전기차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충전속도 우위 확보를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선다. 특히 유럽 전기차 충전 업체에 전략 투자를 단행하고 현지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기아차는 9일 유럽의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 전문 업체 '아이오니티(IONITY)'와 투자 및 전략적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니티의 기존 투자 업체인 BMW와 다임러, 폴크스바겐, 포드와 동일하게 20%의 지분을 갖게 됐다. 투자금액은 비공개다. 계약식은 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아이오니티 본사에서 각 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아이오니티는 기존 급속 충전기보다 충전 속도가 최대 7배 빠른 350kW급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현대·기아차가 자체 개발하는 고전압 전기차 판매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회사는 전망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21년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



현대·기아차 상품본부 토마스 슈미에라 부사장(앞줄 왼쪽)과 아이오니티 마이클 하제쉬 CEO를 비롯해 BMW 베네딕트 솔트 기업전략담당 등 관계자들이 협약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할 전기차 전용모델에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800V급 충전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다.

아이오니티가 제공하는 350kW급 초고속 충전기는 3분 충전만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이를 이용하려면 800V급 고압의 충전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제 코나 일렉트릭(배터리 64kWh 기준)은 100kW급 급속 충전기를 활용, 배터리 80%를 채우는데 54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800V 충전시스템이 적용된 전기차의 경우 350kW급 초고속 충전기에서 충전 시 약 15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차 시스템과 기온 등에 따라 시간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전략 투자를 계기로 효율성을 높인 전기차 전용모델은 물론 스포츠카 수준의 고성능 전기차와 특화시양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대는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해서 미래 전기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요소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아이오니티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차량 구매 시 가장 고민하는 것 요인이 충전 인프라라는 점에서 착안해 만든 회사다. BMW그룹, 다임러 AG, 폴크스바겐그룹, 포드 모터 등 유럽 중심의 완성차 업체 4개사가 유럽 전역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17년 11월 공동 설립했다.



기아차 니로 아이오니티 충전소 충전 모습.

아이오니티는 지금까지 유럽 전역 고속도로망에 140여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며 유럽 내 최대 초고속 충전 사업자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내년까지 유럽 24개국을 관통하는 주요 고속도로에 약 120km 간격으로 총 400개의 초고속 충전소를 세워, 충전 우려 없이 전기차로 유럽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아이오니티는 디지털 결제 방식과 유럽 전기차 충전 표준을 적용해서 전기차 제조사에 구매받지 않는 광범위한 호환성을 갖췄다.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우위를 지속 유지하려면 대규모 초

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이 현대·기아차의 최대 전기차 판매 지역이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까지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니로 EV, 쏘울 EV 등을 앞세워 총 2만3000여대의 전기를 유럽에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7000여대)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EU 국가들의 전기차 확대 정책에 따라 앞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21만대 수준이었던 유럽의 순수 전기차 시장은 올해 30만대 이상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2030년에는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20~3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차 핵심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투자와 협업을 과감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동남아시아 최대 카셰어링 업체인 그랩(Grab)에 2억7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올 3월에는 인도 1위 카셰어링 기업 올라(Ola)에 3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기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차, 中 법인 첫 현지인 CEO 리핑

기아자동차가 9일 중국 현지법인 동평 위에다가 총경리에 리핑 전 바오닝그룹 상무부총경리(사진)를 임명했다. 기아차가 현지인을 중국법인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핑 총경리는 16일자로 기아차에 합류해서 중국 내 생산과 판매, 기획 등 업무를 총괄하며 중국사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게 된다고 기아차는 말했다.

그는 2009~2013년에 베이징현대 부총경리로 근무하며 탁월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기차고분 총재, 기서기차 부총경리, 북경기차복전(상용차) 자동차공정 연구원 원장 등도 지냈다.

동평위에다가 진병진 총경리는 현대차 엘라바마 생산법인장(HMMA)으로 부임한다.

/양성운 기자

현대·기아차, 전기차 세계 판매량 140% ↑

상반기 코나·니로EV 4.5만대 판매 점유율 6.5%... 세계 9위→5위로

현대·기아차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5위로 뛰어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대차그룹이 국내외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만4838대(현대차 3만963대, 기아차 1만387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445대에서 140% 넘게 증가했다. 특히 현대차는 코나EV(2만3247대), 기아차는 니로EV(1만122대)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의 분석 결과,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6.5%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슬라, BYD, 르노닛산, 상하이자동차(SAIC)에 이어 5위다. 지난해 점유율 4.1% 세계 9위에서 2.4%포인트 늘어 순위가 4단계 상승했다. 지난해 1위는 테슬라였고 2위 베이징자동차(BAIC), 3위 르노닛산, 4위 BYD, 5위 장안(長安)자동차, 6위 상하이자동차, 7위 체리자동차, 8위 장화자동차 등의 순



이었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에는 2437대의 전기를 팔아 점유율이 0.9%에 불과했고 세계 순위도 15위였다.

2017년 점유율이 3.7%로 올라섰고 2018년에는 판매량 6만대와 점유율 4%를 넘기며 처음으로 세계 10위안에 진입했다.

세계 전기차 수요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14년 17만8000대에서 2015년 31만8000대로 두배로 뛰었고, 지난해는 119만8000대로 100만대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는 70만4000대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연간으로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까지 합한 전체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도 상승세다. 2014년 8.7%에서 올해 상반기 36.0%로 높아졌다. 하이브리드차는 같은 기간 84.7%에서 50.5%로 내려왔다.

/양성운 기자

효성, 中서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 알려

기술력·품질 인지도 제고 성공

효성이 탄소섬유로 글로벌 공략에 나선다. 효성은 3~5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에서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출품작은 탄섬으로 만든 전선 심재와 수소차용 고압용기 등이다. 탄소섬유 복합재료 시장 트렌드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효성은 탄소섬유 기술력과 품질 인지도도를 제고하는데 성공했다. 고객들을 만나 거래선을 발굴하는 등 성과도 올렸다.

앞서 효성은 2028년까지 탄소섬유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탄소섬유 역량 강화를 공언한 바 있다. 탄소섬유가 다양한 첨단 산업에 중요하게 쓰이는 만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효성은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에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을 선보이고 기술력을 뽐냈다. /효성

기대된다.

당시 조현준 효성 회장은 "탄소섬유 후방산업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수소경제로 탄소섬유의 새로운 시장이 열린 만큼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기아차 "이마트 21곳서 전기차 우선충전 하세요"

기아자동차가 이마트 등과 손잡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기아차는 이마트, 에스트래픽과 함께 소비자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우선충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차 우선충전서비스'는 기아차 전기를 보유한 소비자들이 전국 이마트

주요 지점에 설치된 초급속 충전기를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충전 지원 서비스다.

기아차 전기차 보유 소비자는 기아차 충전 파트너사인 에스트래픽 충전 애플리케이션 'EVRO'의 '기아자동차 라운지'를 이용해야 한다. 전국 이마트 21개소에 설치된 기아차 우선 사용 100kW급

충전기 27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약, 인증, 간편 결제 등을 통해 이용한다.

충전기 사용을 예약할 경우 예약 진행 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안에 예약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예약 시간으로부터 10분 안에 도착할 경우 초급속 충전기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